

긍정감정으로서의 행복*

- 자존감과 시기심의 관계를 중심으로 -

강용수**

주제분류 윤리학, 사회철학, 현대철학, 철학상담

주요어 행복, 자존감, 긍정, 시기심, 정의, 분배

요약문

이 연구는 자존감을 행복감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근본감정으로 간주하고, 그것과 관련해 수치, 증오, 가책 등 연관된 감정의 층위를 분석함으로써 자존감의 의미를 사회철학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자존감은 ‘객관적인 목록’으로서의 행복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타자와 비교함으로써 형성되는 상대적 주관적인 감정으로서 타자의 ‘ 좋음’(덕)에 대한 긍정과 인정이 없이는 획득될 수 없는 행복감이다. 이 논문은 행복과 감정의 관계를 고려하여 행복의 조건을 ‘자존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자존감(self-respect, self-esteem)은 행복감을 구성하는 최소 조건으로 개인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인정과 존경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자존감이라는 자기긍정적 정서는 ‘좋은 것’을 둔 무한 경쟁 속에서 발생하는 시기심(envy)에 의해 파괴되고 훼손된다. 행복감정은 좋음과 관련해 자기존재의 긍정(pride)과 타자존재의 긍정(admiration)으로 구성되고, 자존감은 좋음과 관련한 자부심(pride)과 옳음과 관련한 자기옳음(self-rightness)의 결합이다. 이 글은 우선 자존감과 시기심에 대한 철학사적 논의를 통해 그러한 감정의 기원과 기능에 대해서 다루고, 정의와 관련해 자존감과 시기심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시기심의 극복의 가능성을 롤즈의 정의론과 니체의 행복의 철학에서 찾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8067575).

** 고려대학교

1. 들어가는 말: 행복의 역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원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명한 명제는 최근에 ‘성공하는 삶의 이론으로서의 윤리학’(Ethik als Lehre vom gelingendem Leben)¹⁾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인 해석에서 현대의 ‘긍정심리학’에 이르기까지 행복에 대한 연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다른 주제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회과학의 통계학적인 방법론에 의해 행복이 그래프와 수치로 계량화될 때 행복은 객관화될 수 있다고 굳게 믿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과 ‘성과’²⁾로 포장된 시장가치에 의해 개인의 행복이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슈페만(R. Spaemann)의 지적처럼, ‘성공하는 삶’, 번성하는 삶으로서의 행복은 궁극적으로 실천철학의 오랜 딜레마인 ‘이율배반’의 문제를 고스란히 갖고 있다. 즉, 행복의 이율배반은 삶의 성공을 완성과 연결하여 볼 때, ‘완전한 행복’이라는 꿈은 형이상학에서처럼 ‘현실의 전체(das Ganze der Wirklichkeit)’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³⁾ 삶의 전체를 고려하여 자신을 실현해가는데 획득하는 긍정적인 정서가 행복이지만, 완전성과 완성은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확고하게 믿고 있는 ‘철학자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명제는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역설이 되고 있다. 니체(F. Nietzsche)의 지적처럼 충분히 ‘사려 깊음’을 실천하는 철학자는 성공이나 인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통속적인 기준에 따라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다.⁴⁾ 오히려 많은 행복에서는 불행을 찾게 되고 오히려 불행의 조

1) R. Spaemann, *Glück und Wohlwollen versuch über Ethik*, Stuttgart, 1989, 15쪽.

2) 피로사회의 핵심이 바로 이러한 성과사회(Leistungsgesellschaft)의 문제점에 있다.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2.

3) R. Spaemann, 앞의 책, 85쪽.

건에서 행복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⁵⁾ 행복의 역설이란 인간이 추구한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행복을 성취한 단계가 다시 불행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이다.

긍정심리학에서 다루는 행복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서술이다. 물론 사회적인 여건, 경제적인 조건, 만족감을 고려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개인적인 감정과 연관하여 사적영역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공적인 영역과 관련해서 본다면, 행복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감정’⁶⁾인 것만은 분명하다. 삶의 영역이 두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면, 행복감은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감정도 함께 포함해야 할 것이다. ‘타인에 대한 자기평가’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통해 성취되는 행복감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모두 아우르는 것은 분명하다.⁷⁾ 행복이 ‘공공선’의 이념적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감정’으로서의 행복감을 연구할 때, 개인의 사적 영역을 넘어 시장

-
- 4) F. Nietzsche,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II』 294, 김미기 옮김, 서울: 책세상, 2002, 404쪽.
 - 5)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에서 인간은 과잉과 결핍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의 운명을 지니 영원한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에 안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은 불행과 행복의 끊임없는 연속이다.
 - 6) 누스바움(M. Nussbaum)이 사회적 감정으로 제시하는 ‘공적 감정’(public emotion)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1차적 자연감정이 아니라, 숙고와 반성을 통해 형성되는 2차적 감정이다. 누스바움의 관점에서 아담 스미스에게 ‘제 3의 관찰자’ 관점을 통해 공감은 ‘정화과정’을 통해 ‘공적인 감정’으로 바뀌게 된다. ‘분별있는 관찰자’는 역지사지라는 상상력과 함께 이성적 판단의 개입을 통해 타자의 불운에 함께 참여하는 ‘공공적 상상력’(Public Imagination)을 갖춰야 된다. M. 누스바움, 『시적 정의』, 박용준 옮김, 서울: 궁리, 2013.
 - 7) 일본의 ‘공공철학’에서 개인적 행복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하는 ‘떨공봉사’에, 반대로 공적 행복만을 강조한다면 ‘떨사봉공’, ‘천황승배’와 같은 절대적인 자기희생에 빠지게 되는 위험이 있다. 새로운 공공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존의 공사이원론의 논리를 넘어선다는데 점에서 일본의 경우 공과사를 모두 살리는 ‘활사개공’의 이념이 도입한다. 야마와키 나오시(山脇直司),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 성현창 옮김, 이학사, 2011 참고.

논리로 환원될 수 없는 행복의 고유한 가치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행복과 감정의 관계를 고려하여 행복의 조건을 ‘자존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자존감(self-respect, self-esteem)⁸⁾은 행복감을 구성하는 하나의 최소 조건으로 개인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인정과 존경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 행복한 사회는 개인의 자존감이 최소한 보장되는 체계를 갖춘 인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존감이라는 자기긍정적 정서는 ‘좋은 것’을 둔 무한경쟁 속에서 발생하는 시기심(envy)에 의해 파괴되고 훼손된다. 따라서 갖고 싶지만 갖지 못했을 때 타인의 것과 자신의 것을 ‘비교’함으로써 불만족이나 열등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생겨난다. 객관적인 행복지표가 높게 나오는 나라에서도 ‘비교’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주관적 행복감을 낮추게 한다. 물질적인 부가 아무리 많이 축적된다고 해도 상대적 불행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타인의 것과 자신의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인간의 근본적 본성과 관계되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행복 감정에 대한 ‘철학적 인간학’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행복의 궁극적인 단계로 제시되는 긍정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행복감정은 좋음과 관련해 자기존재의 긍정(pride)¹⁰⁾과 타존재의

8) 돌즈는 self-respect와 self-esteem를 혼용하여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self-respect는 자존감, self-esteem은 자부심, 자중감, 가치감으로 달리 번역된다; 개념의 구별과 관련해 G. Taylor의 ‘self-esteem’(Selbstwertgefühl)과 ‘self-respect’(Selbstachtung)의 용어를 참고바람; G. Taylor, *Pride, Shame and Guilt: Emotions of Self-Assessment*, Oxford 1985, 77ff. 비교;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셀리그의 책 *Authentic Happiness*에서는 self-respect에 대한 언급은 없고 self-esteem만 있다. Martin E. P. Seligman, *Authentic happiness :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 Free Press, 2002.

9) 따라서 비교감만을 기준으로 삼을 때 모두 평등하게 가난한 나라의 행복지수가 양극화로 분열된 선진국보다 더 높을 수 있다.

10) G. Taylor, “Pride”, in: Amélie Oksenberg Rorty (Hg.), *Explaining Emotions*, Berkeley 1980, 385-402, 392. 덕의 관점에서 자존감을 옹호하는 논문으로 T. Smith, “The Practice of Pride”, in: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1998, 71-90

긍정(admiration)으로 구성된다. 둘째, 행복감정은 삶의 긍정된 내용을 무한한 시간의 차원에서 ‘반복’을 수용하는 숙고된 선택을 뜻한다. 자존감이 행복을 이루는 중요한 긍정감정이라고 할 때, 전통적으로 타자에 대한 상호존중(I. Kant)과 사랑, 인정(G. Hegel)과 자신에 대한 존경을 전제한다. 그러나 자존감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시기심, 증오, 수치, 의분 등 인간의 여러 도덕 감정과 중첩되는 중요한 주제이다.

논자는 자존감을 행복감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근본감정의 하나로 간주하고, 그것과 관련해 수치, 증오, 가책 등 연관된 감정의 층위를 분석함으로써 자존감의 긍정적 함의를 사회철학의 관점에서 밝히고자 한다. 특히 롤즈(J. Rawls)의 자존감에 대한 도덕심리학과 니체(F. Nietzsche)의 원한(Ressentiment)의 도덕계보학의 비교를 통해 긍정감정으로서의 행복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자존감은 ‘객관적인 목록’으로서의 행복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타자와 비교함으로써 형성되는 상대적 주관적인 감정으로 ‘ 좋음’(덕)과 ‘옳음’에 대한 일관된 감정을 배제하고서 얻을 수 없는 행복감의 필수조건이다. 이 글은 우선 자존감과 시기심에 대한 철학사적 논의를 통해 그러한 감정의 기원과 기능에 대해서 다루고, 정의와 관련해 자존감과 시기심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시기심의 극복의 가능성을 니체의 행복의 철학에서 찾고자 한다.

2. 철학적 주제로서의 자존감과 시기심

철학사적으로 볼 때 자존감은 독립된 주제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단편적이지만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¹¹⁾ 근대 데카르

쪽, 참고; 자신감과 관련해 K. Kristjansson, *Justifying Emotions: Pride and Jealousy*, New York 2002, 이 글에서 pride와 pridefulness은 구분되며, 후자를 그는 자기존중의 전제로 파악한다.

트(R. Descartes)부터 시작된 연구는 흄(D. Hume)에 의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잘 정립된 자부심’(well established pride)을 뜻하는 ‘자존감’(self-esteem)으로 강조되고, 도덕적 개념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자연스러운 덕으로 자리 잡아¹²⁾ ‘우쭐한 자기만족’(self-applause)과는 구별되어 공감을 매개로 스스로 도덕성을 지닐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본감정으로서 자존감은 주체를 직접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타자의 인정에 작용하는 점에서 사회생활에 유용하다.¹³⁾ 무엇보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의 덕을 높게 평가하는 감정으로 자만과 오만이라는 극단이 아니라 중간의 값(중용)을 갖는다. 흄과 같은 입장에서 스미스(A. Smith)는 자존감의 결핍을 근대 사회의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¹⁴⁾ 존경(Achtung)은 누구보다도 의무윤리학의 대표자인 칸트(I. Kant)에 의해 주목받게 된다. 칸트에 따르면, 존경은 ‘지성적 감정’(ein intelligibles Gefühl)으로 이성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 도덕법칙과 방향을 함께 하는 감정현상이다. 따라서 존경의 감정은 ‘인격’(Personen)과 관계하는 것이다.¹⁵⁾ 칸트는 『도덕형이상학의 기초』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인격을 향한 모든 존경은 본래 우리에게 범례를 제공하는 법칙을 향한 존경이다.”¹⁶⁾ 칸트에게 도덕법칙에 대한 의무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11)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연구에서 자존감은 자기감정의 발전으로 이해된다. 첫 번째 단계는 본능적 이기적 자기관계(selfishness), 두 번째 단계는 습관에 근거한 자기관심(self-interest 경우에 따라서 자기 사랑(self-love)), 마지막 단계인 의식된 자존감(high, inward guarantee of objectively moral conduct)로 발전된다. Article. Self-Respect, in: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edited by James Hastings, Edinburgh/New York: 1908ff, 11, 367-368쪽.

12) 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III, 3, sect. 2. ed. L. A. Selby-Bigge, Oxford², 1978, 599쪽.

13) D. Hume, 앞의 책, 600쪽.

14) A.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VI, sect. 3, ed. D. D. Raphael, A. L. Macfie, Oxford, 1976, 259쪽.

15) M. Kühn, “Einleitung”, in: *Immanuel Kant, Vorlesung zur Moralphilosophie*, hg. von Werner Stark, Berlin 2004, XIIf.

본질에 대한 존경을 요구하게 되는데,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은 바로 우리 안의 더 높은 힘을 자유의 의식 안에서 존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감은 자기 기쁨, 순수한 충동, 편안한 자기만족, 자립 등 주체와 관계되는 긍정 감정을 적극적인 가치로 갖는다.

그러나 철학사를 개괄하면 자존감의 윤리적 함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한 이유는 자존감이 ‘ 좋음’ 뿐만 아니라 ‘옳음’의 두 영역에 걸쳐있는 모호함 때문이다. 행복감정을 대상과 지향성에 따라 분류하면, 좋음(the good)과 옳음(the right)에 대해 자신이 갖는 경우와 타인이 갖는 경우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감정의 유형과 평가방식¹⁷⁾

대상	지향성	평가 (+ 긍정 - 부정)
좋음 (the good)	자신에 대해	pride (+)
	타인에 대해	admiration (+) envy (-)
좋지 않음	자신에 대해	shame (-)

- 16)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Werkausgabe Band VII, hg. von Wilhelm Weischedel, Frankfurt a.M. 1968, BA 17쪽; 그러나 법칙에 대한 존경과 인격에 대한 존경이 서로 어떻게 관계하는지는 쟁점으로 논의되는 문제다. H. Kohl, “Die Theorie des moralischen Gefühls bei Kant und Schopenhauer”, in: H. Fink-Eitel/G. Lohmann (Hg.), *Zur Philosophie der Gefühle*, 136-156, 154쪽.
- 17) 이러한 감정 분류는 논자가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아직 미완성된 상태다. 이 주제를 고려대학교 중점연구소 행복연구단에서 발표할 때 오상무 교수(고려대)를 포함해 연구단 소속의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데 감사드리며, 특히 pride, admiration, self-rightness, indignation 개념을 제안해준 김현섭 교수(서울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는 긍정적인 감정이며 - 는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낸다. 수치심, 가책과 관련해 최근의 국내의 연구로는 임홍민, 『수치심과 죄책감』(바다출판사, 2013), 의분과 관련해 손병석, 『고대 희랍과 로마의 분노론』(바다출판사, 2014)을 참고바람.

	타인에 대해	sympathy (+) schadenfreude (-)
옳음 (the right)	자신에 대해	self-rightness (+)
	타인에 대해	respect (+)
옳지 않음	자신에 대해	guilt (-)
	타인에 대해	indignation (-)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와 타자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옳음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갖지만 타인의 옳음에 대해서는 시샘을 한다. 시기심은 타자의 ‘옳음’(the good 선, 탁월성, 덕)과 관련해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이며 그 반대로 자신의 옳음의 결핍에 대한 수치심(shame)이 있다. 옳음(the right)과 관련해 부정적인 감정은 타자에 대한 분노(의분)와 자신에 대한 죄책감(가책guilt)이 있다. 따라서 ‘행복감의 원천’인 자존감은 옳음과 관련된 자신에 대한 자부심(pride)과 옳음과 관련된 자기-옳음(self-rightness)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자존감은 옳음과 관련해서는 쾌락주의와 연관되지만 옳음과 관련해서는 정의론과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서 행복이 ‘옳음’, ‘좋은 삶’(Well-being)에 대한 추구로 규정될 수 있지만, 인간의 행복이 삶의 궁극적인 옳음과 관련된다고 해서 옳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¹⁸⁾ 예를 들어 법을 어기고서라도 쾌락을 추구한다면,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참된 좋은 쾌락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존감과 관련해 ‘시기심’(envy)이 어떤 함의를 갖는냐를 따지는 것은

18) 만약 행복을 옳음에 대한 감정으로만 행복을 구성한다면, 법을 어긴 자도 행복할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면 법을 어길 수 있다고 대답한 결과가 충격적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인간학의 논의에서 밝혀볼 필요가 있다. 만약 행복이 자신에 대한 평가와 타인에 대한 평가를 합친 비교의 감정이라면 행복은 사람마다 다른 상대적인 가치를 지닐 가능성이 높다. 타자의 좋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감정인 시기심(*invidia*)은 다른 사람의 뛰어난 외모나 능력 등을 갖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적 반응이다.¹⁹⁾ 이러한 이기적 자기관심, 자기이해의 경향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²⁰⁾는 유사한 감정인 ‘의분’(*nemesis*)²¹⁾과 질투(*zêlos*)를 비교하면서 시샘(*phthonos*)을 탁월성에 속하지 않는 감정으로 분류했으며 아퀴나스(*Th. Aquinas*)²²⁾는 기독교의 전통에서 시기심을 악덕으로 간주했다. 요약하면 시기심은 평등하거나 유사한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 느끼는 특정한 방식의 고통이다.

근대철학에서 시기심(*Neid*)에 대해 철학적으로 풍부하게 논의한 철학자는 스피노자다. 『에티카』의 3부에서 “인간은 타고나면서 시기심을 가진다.”²³⁾면서 시기심은 일종의 “증오”로 “다른 사람의 행복에 불쾌감을 느끼고 그의 불행에 대해 기쁨을 느끼는” 감정으로 정의된다.²⁴⁾ 이러한

19) 가장 유명한 예로는 이솝우화의 신포도(*Sour Grapes*) 이야기가 있다.

20)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창우 외 옮김, 서울: 이제이북스, 2006; 시기심의 부정적인 정의에 대해 *Aristoteles, Rhetorik*, übersetzt mit einer Bibliographie, Erläuterungen und einem Nachwort von Franz G. Sievecke, München 1980, 1387 b, 116쪽 참고.

21) 의분은 ‘받을 가치가 없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고통’이다.(*Schmerz über unverdientes Glück*), *Aristoteles*, 앞의 책, 1386 b, 112쪽.

22) *Th. Aquin, Summa Theologica*, I-II, quaestio 24, art. 4

23) B. Spinoza, *Ethik*, in: *Sämtliche Werke*, Band 2, in gebmetrischer Ordnung dargestellt, Neu übersetzt, herausgegeben, mit einer Einleitung versehen von Wolfgang Bartuschat, Lateinisch-Deutsch, Hamburg, 2007, 55장 319쪽; “*Menschen (sind) von Natur aus neidisch.*”

24) B. Spinoza, *Ethik*, hg. von K. Blumenstock, Darmstadt 1967, III, def. 23, 363쪽; *Neid* ist eine Art von “*Hass, insofern er den Menschen so afficirt, dass er über das Glück eines Andern Unlust empfindet und über das Unglück eines Andern*

점에서 시기심은 ‘남이 안돼야 기쁜 감정’(Schadenfreude)과 본질적으로 같고, 타인의 행복이나 불행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상승하게 하는 타고난 성향이다. 시기심의 문제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제한의 경쟁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싸움이 강화되면서 소유를 중시하는 이기주의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홉스(Th. Hobbes)는 변화된 근대 사회의 배경에 대한 지식없이 시기심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²⁵⁾ 자존감과 시기심에 대한 정치철학적인 논의는 롤즈(J. Rawls)의 정 의론에서 본격적으로 주제화된다.

시기심은 자신이 갖고자 욕구하는 대상을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을 부정하는 모순된 이율배반의 감정이다. 시기심은 타인의 행복에 대해 불행감을 느끼는 것이고, 타인의 불행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파괴적인 성향은 다른 사람이 좋은 것(a good)을 소유할 때 발생하며, 그 대상은 다른 사람의 좋음, 예를 들어 좋은 차, 소유물, 능력, 지식, 사회적 위상, 친구 등이 된다. 타자의 특정한 좋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해 ‘비교하는 관점’(vergleichend Perspektive)은 ‘가능한 평등’(mögliche Gleichheit)을 미리 전제한다.²⁶⁾ 경험론자인 베이컨(F. Bacon)의 지적처럼, 시기심은 자신과 다른 사람이 비교할 때만 발생하며, 비교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왕들은 왕들에게만 시기의 대상이 된다.”²⁷⁾ 곧 시기심은 자신이 다다를 수 있는 비교가능한 동등한 지위 안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의 비교에서만 발생하게 되지만 신분이 전혀 다른 ‘주인과 노예’ 사이

sich dagegen freut.”

25) Th. Hobbes, *Vom Menschen - Vom Bürger*, eingeleitet und hg. von Günther Gawlick, Hamburg² 1966, 35쪽.

26) Ch. Demmerling, Hilge Landweer, *Philosophie der Gefühle Von Achtung bis Zorn*, Stuttgart, 2007, 197쪽.

27) F. Bacon, *Über den Neid* (1612), in: ders., *Essays*, hg. von Levin L. Schücking, Leipzig⁴ 1979, 31-37, 34쪽. 시기심에서 비교의 역할과 관련해 Aaron Ben-Ze'ev, *The Subtlety of Emotions*, Cambridge 2000, 282쪽 참고.

에서는 생겨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정의의 기원은 좋은 것의 분배와 소유의 문제와 관련된다. 분배의 기준을 능력에 따른 차등적 분배와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평등한 분배로 구분할 때, 시기심은 평등에 대한 강한 요구와 함께 불평등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한다. 시기심은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근본성향(Grundstreben)이며 그것을 통해 인간은 분노, 아픔, 손상, 슬픔, 증오를 경험하게 된다.

지금까지 철학사적 배경에서 살펴본 논의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시기심은 첫째, 타자와 자신에 대한 비교감정에 근거하고, 둘째 타자와 자신의 근본적인 평등성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며, 셋째, 불만족에 따른 분배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3.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와 분배적 정의

자존감과 시기심을 현대 정치철학의 논의로 끌어들이는 학자는 롤즈(J. Rawls)와 노직(R. Nozick)²⁸⁾이 있다. 롤즈는 칸트의 후계자답게 자존감이 사회적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획득해야 할 기본선(a primary good)에 속한다고 본다. 그는 두 가지 차원에서 자존감을 구분한다. 하나는 자신의 목적체계나 삶의 목적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를

28) 자존감은 롤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선’이다. 존 롤즈,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03, 568, 696쪽. R.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1971, Part II. Chapter 8, Equality, Envy, Exploitation, Etc.-self-esteem and envy, 239;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hapter IX. The Good of Justice, 80. The Problem of Envy 81. Envy and Equality. 국내에는 롤즈의 자존감을 주제로 홍성우의 「롤즈의 자존감 이론」, 박상혁의 「롤즈(Rawls)의 정의론에서 시민들의 자존감 보장과 결사체 민주주의적 발전」, 목광수의 「롤즈의 자존감과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등의 연구논문이 있다.

위한 의미를 뜻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의도를 실행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다.²⁹⁾ 그것의 기초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상호적인 존중의 의무를 자신의 삶의 계획을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실현하며 사회 안에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똑같이 분배하자는 것이다. 자기 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초가 필요하며, 그러한 사회적 기초는 제도에 의한 존중과 시민들의 상호존중이다.

롤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본가치로 간주된 자존감을 도덕성의 능력과 합리성의 능력에 따라 ‘개인적 자존감’과 ‘시민적 자존감’으로 구분하고, ‘개인적 자존감’에 우선하는 ‘시민적 자존감’을 보장하기 위해 평등한 시민권을 보장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위한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³⁰⁾ 무엇보다 정치적 평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차등의 원칙과 정치적 결사체를 통해 시민적 최소치 보장을 위한 민주주의적 요소들이 정치적 평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적 자존감’의 사회적 기초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존감의 사회적 기초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제도에 의한 존중(*institutional respect*)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시민들로부터의 존중(*mutual respect* 혹은 *institutional ties*)이다.”³¹⁾ 롤즈는 개인적 자존감의 사회적 기초를 보장하는데 ‘자존감의 사회적 기초의 분배방식’이 가능하면 정치적인 평등의 원칙에 따라 분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롤즈의 자존감의 이론은 도덕심리학적 입장에서 수치심, 죄책감, 가책 등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자존감이 도덕적 주체로서 개인이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만족하면서 자랑스러운 감정을 뜻한다면, 비난과 왜곡과 위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굴종감

29) 존 롤즈, 앞의 책, 568쪽.

30) 박상혁, 「롤즈(Rawls)의 정의론에서 시민들의 자존감 보장과 결사체 민주주의적 발전」, 『철학연구』 제97집, 철학연구회, 2012, 94쪽.

31) 박상혁, 같은 글, 95쪽.

을 뜻한다. 자신의 ‘가치감’³²⁾과 ‘자신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존감³³⁾은 수치심과 비교할 때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질 수 있다. 롤즈는 수치심을 ‘능력의 탁월성’의 부재 및 상실에 따른 자연적 수치심(natural shame)과 ‘인격의 탁월성’의 부재 및 상실에서 기인하는 도덕적인 수치심으로 구분한다.³⁴⁾ 우선 자연적 수치심을 살펴보면 그것은 우리가 갖고자 하는 인간의 능력을 발휘할 탁월성을 갖지 못할 경우 자부심이 손상되어 생기는 감정이다. 탁월성의 상실과 결핍은 ‘ 좋음’(선)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³⁵⁾ 요약하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탁월성이 자존감의 조건이 되는 이유는 인생의 계획에서 하고자 하는 것, 목적으로 수행하고자하는 것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의 탁월성의 상실이나 부재를 가져오는 결함이나 행위의 실패를

-
- 32) 자존감의 하나의 구성요소인 가치감을 유지해주는 여건은 다음 두 가지다. (1) 아리스토텔레스적 원칙(the Aristotelian Principle)을 만족시키는 합리적 인생 계획을 가져야한다. (2) 우리의 인격과 행위가 마찬가지로 존경을 받고 있는 타인들에 의해서 평가받고 인정받으며 그들의 조직체에 의해서 향유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J. Rawls,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 Harvard, 1999, 386쪽.
- 33) 존 롤즈는 “자존감이 없다면 어떤 것도 할 만한 가치(worth)가 없어 보이며, 또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가치(value)가 있더라도 그것들을 추구할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모든 욕망과 활동은 공허하고 헛된 것이 될 것이며, 우리는 무감각하고 냉소적인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존감을 침해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피하길 바랄 것이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 사회적 기본 재화로서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가 얼마나 사회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기본 재화인지를 역설한다. J. Rawls, 1999a 386쪽. 번역본 568쪽;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가 “가장 중요한 기본 재화” J. Rawls, 앞의 책, 79쪽; “자존감이 차등원칙에 의해 더 확고하게 강화되고 지지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J. Rawls, 앞의 책, 318, 326쪽.
- 34) J. Rawls,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 Harvard, 1999; 『정의론』, 황경식 옮김, 서광사, 2003, 389-390쪽 참조.
- 35) J. Rawls, 앞의 책, 389쪽; 탁월성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선이 되는 이유는 첫째, 우월감을 높여 더 만족스러운 인생 계획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동료들에 의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하고, 셋째, 중사하는 일에서 얻는 즐거움이 자부심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탁월성은 인간 발전의 조건이 되면서 객관적인 선이 된다.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연적 수치심과 구별되는 도덕적 수치심은 도덕적인 덕, 특히 정의감을 갖고 행위하지 못하는 경우 생겨나게 된다.³⁶⁾ 도덕적 수치심은 옳음의 원칙의 규제적 특성이 자신의 합리적인 인생계획과 일치하는 못하는 경우 자신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인간은 존엄감과 도덕감에 기초하여 자존감을 느끼는 인격적 주체인데, 도덕적 수치심은 죄책감과 구별되는 감정이다. 예를 들어 군인이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항복하는 경우 생명을 보존하는 기쁨(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용기(탁월성)를 발휘하지 못한 것에 수치심을 갖게 되고 옳지 않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수치심과 구분되는 죄책감은 ‘옳음’과 ‘정의’에 반(反)하는 행위에 기인하는 감정이다. 곧 자신의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한 타인의 분노나 의분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에서 죄책감을 느끼지만, 자신이 ‘용기’라는 선을 실현하지 못한 데서 수치심을 느낀다. 자신의 도덕적 결핍 때문에 자기가치감이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 절교, 경멸, 조소와 같은 계기로 인해 자신감이 상실된다. 정리하면, 수치심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발현되어야 할 어떤 탁월성의 상실 및 부재로부터 야기되는 자존감 혹은 자부심의 상실이라는 심리적 현상이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계약 당사자들을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지닌 존재로 가정하고, 이 원칙에 따라 자신의 목적의 체계를 증진시키는 원칙에 합의하려는 합리적 욕구와 도덕 심리적인 경향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상호 무관심성의 원칙은 서로에서 이익과 손해를 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감이나 애정, 증오의 감정이 없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비교하여 더 가지려고 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³⁷⁾ 비록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이익에 무관심하다고 할

36) J. Rawls, 앞의 책, 382-384쪽.

37) J. Rawls, 앞의 책, 125쪽.

지라도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필요성을 인지하며, 자신의 자존감이 타인의 존중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호존중의 의무’를 받아들여지게 된다.³⁸⁾ 상호존중은 타인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라는 칸트의 의무윤리학에 근거한다.³⁹⁾ 상호존중을 통한 자부심의 획득은 칸트의 도덕법칙에 따라서 행위할 때만 가능하며, 도덕적 인격성으로 간주되는 타인에게 존중을 보여야하는 의무는 정의의 원칙에 그대로 반영된다. 곧,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원초적 입장에서 상호무관심한 합리성의 주체도 타인의 자존감을 위해 서로 존중하는 의무를 지키게 된다.

자존감의 보장을 위해 우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범위를 제한할 정책을 펼 때 그 기준은 최소수혜자 원칙이다.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첫째, 극빈자의 기대치를 증진시키는 ‘차등의 원칙’, 둘째, 공정한 기회를 허용하는 기회균등의 원칙, 셋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의 보장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의미있는 일을 할 기회가 없는 경우 시민이 자존감이 손상되므로,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갖되, 그들이 처한 사회적 우연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공정한 기회균등’이 매우 중요하다.⁴⁰⁾ 자아실현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롤즈의 차등의 원칙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롤즈의 정의론에서 도덕 감정인 자존감과 반대되는 감정이 굴욕감이나 열등감이 아니라 시기심(envy)이라는 사실이다. 정의에 대한 롤즈의 평등주의적인 윤리는 시기심이 ‘타인의 행복을 고통으로 느끼는 성향’⁴¹⁾이라는 칸트의 비판에 따라 시기심을 타인의 선

38) J. Rawls, 앞의 책, 155-156쪽.

39) J. Rawls, 앞의 책, 155-156쪽; 롤즈는 계약론적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단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서 동등한 도덕적 인격체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의미를 규정한다. J. Rawls, 앞의 책, 156-157쪽.

40) J. Rawls, 앞의 책, 63쪽.

41) I. Kant, *Die Metaphysik der Sitten*. Werkausgabe Band VIII, hg. von Wilhelm

에 대해 적대적으로 보는 경향으로 정의한다.⁴²⁾ ‘시기심’은 원초적인 참여자인 합리적인 인간에게 배제되어야 할 나쁜 감정이다.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로 인해 자신에 대한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다른 합의 당사자와 시기심 없이 각자 인생 계획과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mutually disinterested rationality)을 갖는다. 합리성이란 남이 자신보다 더 가지는 것에 대해 시기심을 갖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타자와의 비교감정은 절차적 정의에서 ‘무지의 베일’과 ‘무관심’의 두 원칙에 의해 배제된다. 즉 합리적인 인간은 비교하지 않고 시기심을 갖지 않는 존재다.

롤즈의 정의로운 사회는 ‘비교 감정’인 시기심으로 인한 ‘정서적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는 ‘온건한 시기심과 경쟁적 시기심’을 구분하고, ‘시기심과 의분’을 분리해 시기심을 악덕으로, 의분을 도덕적 감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온건한 시기심이 ‘타인이 보다 많은 기회나 업적을 가진 데 대해 시기심이 난다고 말하는 경우’라면, 경쟁적 시기심(emulative envy)은 ‘타인의 보다 큰 선에 대해 마음이 동하여 그와 같은 것들을 갖기 위해 사회적으로 이로운 방식으로 노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⁴³⁾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경제활동의 동기가 되므로 수용해야 되며 단 “이유있는 시기심”(excusable envy)이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자존감이 훼손되는 일은 없다.⁴⁴⁾ 자존감이 보장되는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자존감의 손상에 따른 시기심’은 정의라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 해소되거나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원칙에 따라 ‘인생의 계획’을 갖는 ‘숙고된 합리성’에서 삶을

Weischedel, Frankfurt a.M. 1968, Teil 2, §36, 596쪽.

42) J. Rawls, *Eine Theorie der Gerechtigkeit*, Frankfurt a. M. 1975, 577쪽

43) 존 롤즈, 『정의론』, 황경식 옮김, 『정의론』. 서울: 이학사, 2003, 245쪽.

44) J. Rawls,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464쪽.

선택하는 시민 사회에서 상호존중과 상호인정의 토대 위에 정의로운 사회는 시기심을 조절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이 적절한 자존감을 갖는 것을 보장한다.

인생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심리적인 토대이자 안정성의 원칙으로서 자존감은 가치감, 도덕감, 정의감을 포괄한다. 만약 자존감이 훼손되고 인생전망이 불투명하게 되면 시기심으로 인해 “질서정연한 사회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⁴⁵⁾ 자존감이 상실되면 시기심이라는 파괴적 감정과 경향성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롤즈는, 자신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다른 어떤 정치 이론들보다도 자존감을 보다 확고하게 지지를 해준다고 주장한다.⁴⁶⁾

이렇듯 자존감은 롤즈의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제2의 원칙인 공정한 기회균등 및 물질적 재화의 최소치 보장에 의해 확고하게 지지받고 있다. 자존감의 토대에는 물질적인 재화를 포함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인생계획과 능력을 신뢰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평등한 자유의 보장이 속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각할 경우 사회적 약자, 빈자들의 자존감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과 불행과 같은 “이유 있는 시기심”⁴⁷⁾에 노출될 위험을 막기 위해 물질적 차원뿐만 아니라 도덕·심리적 차원에서 정치적 평등이 충분히 실현되어야한다.

4. 르쌍티망의 자기극복과 행복감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감정적 반응으로서의 시기심에 대한 비판을

45) J. Rawls, 앞의 책, 469쪽.

46) J. Rawls, 앞의 책, 470쪽.

47) J. Rawls, 앞의 책, 468쪽; 황경식 옮김. 『정의론』. 서울: 이학사, 2003, 683쪽.

정의와 도덕의 관점에서 다루고, 르쌍티망을 전통철학자들이 취한 “좁은 의미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도덕적 구분의 기원”과 관련해 “르쌍티망의 개념은 어떤 내용(Gehalt)을 지닌 감정이나 지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의 양태(Modus des Fühlens)”⁴⁸⁾로 이해한다. 따라서 니체는 르쌍티망을 정당하고, 성공적이며, 강함을 나타내는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인 ‘복수심’(Rachesucht)의 일종으로 본다. 르쌍티망은 이른바 ‘노예-도덕’(Sklassen-Moral)이 전제한 ‘선과 악의 구별’(gut und böse)에서 생겨난다. “원한을 가진 인간”은

정직하지도 순박하지도 않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지도 솔직하지도 않다. 그의 영혼은 결눈질을 한다. 그의 정신은 은신처, 셋길, 뒷문을 좋아한다. 은폐된 모든 것을 그는 자신의 세계로, 자신의 안정으로, 자신을 생기있게 만드는 것으로 여긴다...잠정적으로 자신을 왜소하게 만들고 굴종하는 법을 알고 있다.⁴⁹⁾

시기심에 사로잡힌 원한의 인간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적’을 ‘상상’하는 ‘영리함으로 최고급의 생존전략’을 취하면서 “나쁜 적을 악한 사람으로 생각해내고,...그것의 잔상으로 또는 대립물로 다시 한번...선한 인간을 생각해낸다-그것이 자기 자신인 것이다.”⁵⁰⁾ 르쌍티망은 단순히 반응적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선과 악을 구별짓는 도덕감정의 심리적 기반이 된다. 본래 르쌍티망은 어원처럼 적극적(active)인 감정이 아니라 외부에 대한 반응적(reactiv) 감정으로 수동성을 본질로 한다. 그러한 반응적 감정은 악하고 타락한 형태의 시기심의 형태로 평등에 대한 부당한 요구에 근거하고 있다. 케르스팅(W. Kersting)은 니체의 정의론의 이념을 ‘시기

48) Ch. Demmerling Hilge Landweer, “Neid und Eifersucht”, *Philosophie der Gefühle*, Stuttgart 2007, 207쪽.

49) Friedrich Nietzsche, GM 10; KGW VI/2, 286; 번역본 370쪽.

50) 니체, 『도덕의 계보』, 김정현 옮김, 서울: 책세상, 2002, 371쪽.

심의 제거'(Entneidung)⁵¹⁾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현대의 분배적 정의론의 핵심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롤즈의 자존감 이론이 기본적으로 자기실현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과 칸트의 상호존중의 윤리학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재화로서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니체의 경우 그러한 주인과 노예 간의 인정이나 존중은 불가능해 보인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합리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권력에의 의지'를 지닌 존재로서 인간은 자신의 힘을 더 극대화하는 경향을 가지면서 타자의 것(좋은, 선)을 부정하고 시샘하고, 시기하는 원한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학적 인간학⁵²⁾의 바탕에서 보면 시기심은 단순히 피상적인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권력감정이다. 롤즈의 정의론에서 동정심과 시기심을 비롯한 여러 감정적인 요소들이 합리적인 절차적 정의에 의해 충분히 조절될 수 있다고 보았다면, 니체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곧 정의의 기준에 따라, 사회적 선이 '도덕적 기여'(moral desert)에 따라 분배된다고 해도, 그 결과인 불평 등에 대한 시기심은 롤즈의 주장처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분배되었고 절차가 합리적이었다고 해도 결과에 대한 시기심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 시기심은 절차적 정의뿐만 아니라 분배적 정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간의 무의식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반응감정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자면, 현대인들은 왜 불행의 씨앗인 시기심과 질투라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인가? 니체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심층 심리학에서 그 근원을 탐색해본 결과 바탕에는 이전의 상처, 그로부터

51) W. Kersting, "Kritik der Verteilungsgerechtigkeit", in: *Kursbuch* Heft 143, Berlin 2001. 33쪽.

52) 르쌍티망에 대한 철학적 인간학은 셸러의 글을 참고: M. Scheler, *Das Ressentiment im Aufbau der Moralen*, Abhandlungen und Aufsätze, Bd.1, Leipzig, 1915, 39-71쪽.

생겨난 복수감정과 마비에서 유래한 르쌍티망⁵³⁾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시기심은 무의식적으로 치유되지 못한 병과 약자의 입장이 전제하는 전사(前事Vorgeschichte)이다.’⁵⁴⁾ 시기심(Neid)은 수동성과 의존성이라는 감정에서 기인한 행동의 동기다. 시기심을 뜻하는 르쌍티망(Ressentiment)은 프랑스어로 ‘지속적이고 계속 작용하는 지각’에 의해 촉발된 부정적 감정으로 복수심(Rache)을 포함한 무력한 고통의 감각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실제로 적극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따라서 ‘르쌍티망은 상처에 대한 지속적인 의식된 지각으로 늘 반성적(reflexiv)이고 복수하려는 생각과 결합되어 항상 반응적(reaktiv)’이다.⁵⁵⁾ 니체는 시기심을 르쌍티망으로 확장하면서 그것을 단순히 외부에 대한 반응감정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해석의 기원으로 본다. 이것은 몽테뉴(M. Montaigne)의 전통을 수용하여 르쌍티망을 ‘지속적이고 계속 작용하는 지각 또는 감정’으로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따르는 것이다. 이처럼 나쁜 질병의 형태로 간주되는 시기심, 르쌍티망에 대한 니체의 비판은 평등의 정당화와 같은 정치철학적 쟁점을 문제 삼는다. 왜냐하면 만인의 평등이야말로 타자의 높이를 깎아내려 자신에게 맞추려는 잘못된 계략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평등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이 바로 시기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사회에서 완전한 행복에 대한 환상에 빠진 ‘마지막 인간’은 평등을 통해 ‘작은 행복’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그것은 ‘벼룩’이 꿈꾸는 행복이다.⁵⁶⁾ 모든 것이 같다는 신념

53) P. Probst, “Ressentiment”, in: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and 8, hg. von Joachim Ritter und Karlfried Gründer, Basel 1992, 920-924쪽.

54) A. Schöpf, Artikel, Neid, in: *Lexikon der Ethik*, Otfried Höffe(Hg.), München 1997, 216쪽.

55) P. Probst, 앞의 책, 921쪽.

56) Die Erde ist dann klein geworden, und auf ihr hüpfet der letzte Mensch, der Alles klein macht. Sein Geschlecht ist unaustilgbar, wie der Erdflöhe; der letzte Mensch lebt am längsten. „Wir haben das Glück erfunden“ – sagen die letzten

에 동의를 못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가야만 한다.⁵⁷⁾

평등이 실제로 잘 관찰되고 영속적인 것으로 자리 잡았을 때, 대체로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성향, 즉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성향인 질투심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공동의 척도를 넘어서 남이 뛰어날 때마다 질투를 느끼며, 그를 그 척도에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거나-자신을 거기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이와 마찬가지로 평등의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은 그의 품성과 평등성의 이하로 나쁘고 대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의 품성과 평등성의 이상으로 대하는데 불만이 생긴다.⁵⁸⁾

극단적인 시기심은 세상의 좋음 뿐만 아니라 타자의 좋음(덕, 행복)에 대한 자기 기만적 평가에서 유래한다. 정확히 말해 자신이 원래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상이 ‘시기심’으로 인해 부정으로 바뀌게 되는 ‘가치전환’이 일어난다. 시기심은 욕망의 대상인 세계에 대한 부정이자 자기 자신과 타자에 대한 부정, 곧 ‘이중 부정’이 된다.

세계의 파괴자.-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잘 되지 않는다. 마침내 그는 격분해 소리친다. ‘세계가 모두 멸망해버려라!’ 이 험오스러운 감정은 최대의 시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론한다. ‘나는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전 세계는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 전 세계는 무(無)이어야 한다!’⁵⁹⁾

Menschen und blinzeln. F. Nietzsche, Z. Vorrede. 5 KGW VI/1, 13쪽.

57) F. Nietzsche, Z. Vorrede. 5; KGW VI/1, 14쪽; Kein Hirt und Eine Heerde! Jeder will das Gleiche, Jeder ist gleich: wer anders fühlt, geht freiwillig in's Irrenhaus

58) F. Nietzsche, MA II. 29; KGW IV/3, 200, 한글번역 248쪽; 니체 저서는 통일성을 위해 KGW를 인용하며 개별적인 저서의 약기들은 학계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표기한다. F. Nietzsche,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G. Colli und M. Montinari(Hg.), Berlin / New York, 1967ff. (=KGW).

59) F. Nietzsche, M 304; KGW V/1, 226쪽. 한글번역 283쪽.

이러한 르쌍티망이 축적되어 폭발한 지경에 이르면 성직자가 그것을 해소할 방법을 고안해낸다. 성직자는 그 고통의 원인을 ‘너 자신에게 죄가 있다’⁶⁰⁾면서 개인을 죄있는 행위자로 지정해준다. 이렇게 성직자가 방향을 바꾸게 되면서 타자에서 자신으로 향하게 된 르쌍티망은 자책이라는 자기가학적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의한 르쌍티망의 해소는 잘못된 가치전환이다. 잘못된 추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는 불쾌하고 불행하다. 따라서 그 원인은 죄이며 나에게 있다. 행복은 쾌와 불쾌를 포함한 자연적 정서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죄에서 찾는 것은 ‘나쁨과 악’(Schlecht-Böse)의 범주를 혼동하는데서 기인한다.

죄를 뜻하는 독일어 숄트(Schuld)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경제적 의미에서의 부채,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적 양심, 규범의 위반과 관계된다. 교환적 정의와 관련해 반드시 이행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처벌과 책임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처벌과 관련된 적법성과 종교적 의미에서의 죄는 니체의 지적에 따르면 구분되어야 한다. 불행을 종교적인 죄와 관련짓는 성직자의 해석은 결국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다. 니체의 자연주의에 따르면 행복의 감정을 이루는 쾌와 불쾌가 생리학적, 의학, 지리학적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자연 밖에서 찾는 것은 형이상학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기심, 복수심, 르쌍티망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가? 자기긍정으로서의 자존감과 정의감을 지닌 주체는 공적인 감정으로서의 사랑과 정의를 함께 갖춘 주권적 개인, ‘위대한 개인’이다. 타자의 좋음에 대해 시기하지 않고 타자의 옳지 않음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60) “성직자란 원한의 방향을 변경시킨 자이다. 즉 모든 고통받는 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찾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고통을 일으킨 행위자를,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고통에 민감한 죄 있는 행위자를 찾는다.” 니체, 『도덕의 계보』, 김정현 옮김, 서울: 책세상, 2002, 493-494쪽.

‘자비’의 정신을 지닌 태도다.⁶¹⁾ 이러한 정치철학적 입장에서 보복과 복수의 정신을 ‘자기지양’을 통해 극복하고 법으로 구현되는 ‘자비’와 관용이 새로운 윤리의 덕목이 된다.

『도덕의 계보』에 다루어진 기억과 망각, 원한과 가책, 죄책과 양심, 고통과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니체는 보복감정(원한)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자비(mercy)로서의 정의관을 제시한다. 니체에 따르면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은폐된 복수감정’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의 원리가 될 수 없고, 자비는 ‘올바름’과 ‘적극성’, ‘객관성’과 ‘자유’와 ‘양심’을 갖고 ‘대립의 지양’을 추구한다.⁶²⁾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에 거리를 두는 능력을 통해(Pathos der Distanz) 타자에 대해 ‘적대화하지 않으면서도 분리시키는 기술’⁶³⁾을 통해 사적인 분노와 보복감정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감정과 관련해 비록 칸트의 의무윤리학을 거부하지만 니체는 ‘자기 존중’을 ‘기존의 모든 가치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더 높은 도덕’으로 이해하고 있다. 행복으로서의 긍정감정은 타인에 대한 열등감을 줄이고 자존감과 같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행복의 최소조건인 자존감과 관련해 니체는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맹목적인 충동”과 구분하고 다소 다른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고 관용과 용서가 거부될 수 있지만 모든 가치전환에서 ‘더 높은 도덕’을 요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출발점으로 본

61) 니체의 공감과 자비에 누스바움의 다음 논문을 참고, M. Nussbaum, “Pity and Mercy: Nietzsche’s Stoicism,” in: Nietzsche, genealogy, morality essays on Nietzsche’s Genealogy of morals, Schacht, R.(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139-167쪽.

62) F. Nietzsche N 10[63]; KGW VIII 2: 새롭게 요구되는 덕목은 ‘올바르고 적극적인 태도’와 ‘심판하는 눈’, ‘객관성이 흐려지지 않는 눈’, ‘좀 더 자유로운 눈’, ‘좀 더 훌륭한 양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거리를 벌리지만 대립적인 것은 창조하지 않는 것’이다.

63) F. Nietzsche, EH, VI/3, 292쪽.

다.⁶⁴⁾

니체에게 자존감, 자기평가의 조건은 반응적 부정감정(Ressentiment)에서 건강한 주체적 긍정감정(Sentiment)으로의 전환과 동시에 자기긍정에서 타자긍정으로의 확장이다. 이때 인간의 행복은 획일화된 평등주의가 아니라 ‘위계의 인정’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 “차라투스트라는 위계(서열)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⁶⁵⁾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으로서의 능동감정을 갖는 것은 존재뿐만 아니라 타자의 자연적인 차이와 위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연적인 관점에서 타고난 재능이나 탁월함, 후천적으로 획득된 능력에 대해 시샘하고 부정하면서 ‘결과적’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자존감을 잃는 지름길인 셈이다. 자기긍정의 전제인 타자의 긍정, 이것이야말로 행복이라는 긍정감정을 갖는 방법이다. 좋음과 덕의 위계를 부정하는 타자에 대한 시기심은 자신의 자존감마저 위협하는 위험한 ‘독’과 같은 감정이다.

5. 나오는 말

복지국가에서 행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사회구성원의 자존감을 저절로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행복감이라는 긍정적 정서를 얻기 위해 부정적 감정의 극복이야말로 개인적인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 최근 행복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한 ‘긍정 심리학’일 것이다. 그러나 뇌과학을 통한 연구의 한계점은 행복이 뇌가 만들어내는 ‘주관적 쾌감’이라면 실재하는 현실이 배제될 가능

64) F. Nietzsche, N. 14[205]; KGW VIII/3, 179쪽; 니체전집 21, 유고 (1888년 초~1889년 1월 초), 백승영 번역, 서울: 책세상, 2004, 223-224쪽.

65) “Zarathustra () kann nur beglücken, wenn er erst die Rangordnung hergestellt hat.” F. Nietzsche, N 35[71], KGW VII/3, 262쪽.

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쾌락주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이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논문은 행복을 인간의 자존감과 관련하여 롤즈와 니체의 사회철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행복한 사회를 구상할 때 자존감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높여주는 체계를 갖출 필요성을 사회적 정의와 관련해 서술하면서 롤즈의 주장의 타당성과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롤즈가 기여한 부분은 자존감과 시기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다. 곧 자존감이 제도적으로 잘 보장되면 시기심의 발생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다. 시기심이 롤즈에게 자존감 손상의 ‘결과’라면 니체에게 자존감 손상의 ‘원인’이다. 니체는 ‘시기심의 제거’, ‘시기심의 자기조직’이 사회적 제도로서만 불가능하며 실존주의적 삶의 철학에서 스스로 꾸준히 극복해야할 과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칸트적인 의미에서 상호존중과 상호인정만으로는 자존감의 완전한 성취가 불가능하며,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인 비교, 시기, 질투, 원한에 대한 극복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르쌍티망의 극복은 단순히 사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법이라는 사회적 제도의 형태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긍정심리학과 비교할 때 니체의 행복론은 ‘운명애’, ‘디오니소스적 긍정’, ‘삶의 선택’ 등 다소 너무 심오하고 무거운 실존주의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니체에게 생명의 본성은 반응적이지 않고 작용적인 것에 있으며, 긍정뿐만 아니라 부정도 그러한 작용적인 것에서 생겨난다. 따라서 운명애는 삶의 고난, 고통과 관계된 부정적 감정 자체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디오니소스적인 단일성과 복수성, 그리고 삶의 필연성에서 전체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디오니소스가 찢겨서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인간의 삶도 무한히 반복되고 생성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건강한 믿음을 갖고 세계와의 만남, 타인과의 만남이 계속 이어진다고 확신한다. 참된 자기긍정의 감정인 행복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조건이 갖춰지고 타자의 인정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것과 무

관하게 ‘교환가능성’을 거부하고 ‘시기심 없는 철학’(Neidlosigkeit)을 통한⁶⁶⁾ ‘자족’적인 삶에서 얻어질 수 있다.

허카(Th. Hurka)가 구분하는 롤즈의 최소극대화(minimax)와 니체의 최대극대화(maximax)⁶⁷⁾는 두 학자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보여준다. 롤즈가 최소수혜자를 위한 자존감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평등을 추구했다면, 가치감의 부족과 불평등에 지속적으로 직면할 때 불평등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을 ‘더 나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과 희생을 치르도록 인정하는 것⁶⁸⁾에서 찾은 것은 문제가 된다.

니체가 과격한 평등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평등이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기 보다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시기심을 야기하는 잘못된 이념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위계의 인정⁶⁹⁾, 엘리트주의, 차이와 개성의 추구는 특히 인간의 덕목을 형성하기 위한 니체의 교육철학에서 강조되는 이념이다. 자기 긍정의 감정인 자존감(Self-Respect)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상대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만큼 인권(human rights)처럼 강한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 소극적 방식으로 지켜내야 할 사회적 가치다. ‘행복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공리주의에 반대하는 칸트의 입장을 따르는 롤즈는

66) “사회는 항상 어떠한 철학을 요구하는가- 사회질서의 기둥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존재하고 행하고 노력하는 것, 자신의 건강이나 질병, 빈곤이나 행복 그리고 자신의 명예나 보잘것 없음을 밝게 바라보고, ‘그러나 그것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느끼는 그러한 기반 위에서 있다. - 사회 질서를 구축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밝은 마음으로 교환을 거부하고 질투심(시기심)이 없는 철학을 항상 마음 속에 심어주기만 하면 된다.” MA II 396; KGW IV/3, 167쪽;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II』, 니체전집 8권, 김미기 옮김, 서울: 책세상, 2002, 210-211쪽, 논자가 번역의 일부를 변형시킴.

67) Th. Hurka, *Perfectionism*, Oxford, 1993, 75쪽.

68) J. Rawls, *Eine Theorie der Gerechtigkeit*, Frankfurt a. M. 1975, 581쪽.

69) 물론 자연적인 위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우생학이나 인종 차별, 유전공학, 인간사육 등의 문제점이 니체 철학에서 큰 논쟁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슬로터다이크(P. Sloterdijk)의 논쟁은 큰 파급력을 가졌는데, 그러한 정치철학적 비판은 이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다루지 않기로 한다.

행복과 직접 연결하지 않지만 자존감은 정의로운 사회가 반드시 확고하게 지지해야 할 심리적 신뢰감과 안정감이다. 반면 니체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처벌과 보복에 근거한 전통적인 정의론으로는 원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비’와 관용을 통해 타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였다. 롤즈가 말하는 자존감 낙관론과 니체가 말하는 자비를 통한 원한의 극복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즉, 합리적인 인간과 비합리적인 인간이라는 대립적인 구도를 통해서 좋은 인간의 삶을 구현하려고 한 것은 두 철학자의 공통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논자는 행복감을 좋음과 관련해 자기존재의 긍정(pride)과 타자존재의 긍정(admiration)의 결합으로 근거 짓고, 특히 중요한 긍정감정인 자존감을 좋음과 관련한 자부심(pride)과 옳음과 관련한 자기-옳음(self-rightness)의 결합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행복은 옳음과 좋음에 대한 인간의 중층적인 감정의 역학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자존감은 시기심에 대한 니체의 ‘과대평가’와 롤즈의 ‘과소평가’ 사이에서 좋음을 분배하는 원칙과 절차를 밝히는 정의론과 쾌락과 고통의 긴장관계를 탐구하는 공리주의를 통해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누스바움, M., 『시적 정의』, 박용준 옮김, 서울: 궁리, 2013.
- 박상혁, 「롤즈(Rawls)의 정의론에서 시민들의 자존감 보장과 결사체 민주주의적 발전」, 『철학연구』 제97집, 철학연구회, 2012.
- 손병석, 『고대 희랍과 로마의 분노론』, 바다출판사, 2014.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창우 외 옮김, 서울: 이제이북스, 2006.
- 야마와키 나오시(山脇直司),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 성현창 옮김, 이학사, 2011.
- 임홍빈, 『수치심과 죄책감』, 바다출판사, 2013.
-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2.
- Demmerling Hilge Landweer, Ch., “Neid und Eifersucht”, *Philosophie der Gefühle*, Stuttgart 2007.
- Hurka, Th., *Perfectionism*, Oxford, 1993.
- Kant, I.,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Werkausgabe Band VII, hg. von Wilhelm Weischedel, Frankfurt a.M. 1968.
- Kersting, W., “Kritik der Verteilungsgerechtigkeit”, in: *Kursbuch* Heft 143, Berlin 2001.
- Nietzsche, F.,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G. Colli/M.ontinari(Hg.), Berlin/New York, 1967(=KGW).
- Nussbaum, M., “Pity and Mercy: Nietzsche’s Stoicism,” in: *Nietzsche, genealogy, morality essays on Nietzsche’s Genealogy of morals*, Schacht, R.(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139-167쪽.
- Probst, P., “Ressentiment”, in: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and 8, hg. von Joachim Ritter und Karlfried Gründer, Basel 1992, 920-924쪽.

Rawls, J.,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 Harvard, 1999.

_____, 『정의론』, 황경식 옮김, 서광사, 2003.

Schöpf, A., “*Neid*”, in: *Lexikon der Ethik*, Otfried Höffe(Hg.), München 1997.

Seligman, Martin E. P., *Authentic happiness* :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 Free Press, 2002.

Spaemann, R., *Glück und Wohlwollen versuch über Ethik*, Stuttgart, 1989.

Affirmative Emotion and Happiness

-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spect and Envy -

Kang Yong Soo (Korea University)

This study regards self-respect as the most important human emotion of happiness and analyzes the level of related emotions such as shame, hate, and guilt in relation to it. Self-respect is a relative subjective feeling formed by comparing with the other regardless of the characteristics of happiness as an 'objective list', and it is a feeling of happiness that cannot be attained without affirmation and recognition of the other's 'good'. This paper considers the condition of happiness in 'self - respec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emotion.

Self-respect is not a personal condition that is a minimum condition of happiness, but can be secured through recognition and respect in social relationships. However, self-positive emotions of self-respect are destroyed and destroyed by envy that occurs in infinite competition with 'good'. Happiness is composed of the pride of self-existence and the admiration of the other being in relation to goodness, and self-respect consist of pride in relation to goodness, and consist of self-rightness to rightness. This article first deal with the origins and functions of such emotions through the discussion of philosophical history on self-esteem and envy, crit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spect and envy in relation to justice (J. Rawls), and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envy from the philosophy of happiness (F. Nietzsche).

Key words: happiness, self-respect, affirmation, envy, justice, distribution

강용수 e-mail: sternentanz@hanmail.net

투 고 일	2017년 07월 15일
심 사 일	2017년 07월 27일
게재확정	2017년 08월 16일